

“생활이 다를뿐, 나도 당신과 똑같은 노동자”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찾기

(4)우리도 일하고 싶다



대구 서구 원대동에 위치한 대구쪽방상담소 지하 1층엔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이 있다. 132 (40평) 정도 규모의 작업장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지우개와 이를 포장할 상자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지난 2005년 6월 근로능력이 미약한 비수급 쪽방거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작업장엔 현재 4명이 새벽부터 나와 상자를 접고,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을 한다.

지난 19일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흠고 배고파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스스로 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다”며 “자존심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담소의 강정우 팀장은 “게으르다, 더럽다, 술에 찢어 지낸다 등 쪽방(노숙)인을 보는 사회인 편견이 문제”라며 “생활하는 곳이 다를뿐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라고 했다.

#하루살이 인생에서 지금은 월급쟁이 작업장 반장인 최정식(가명·62)씨는 4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주 5일제로 운영되는 작업장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출근시간은 새벽 5~6시, 퇴근은 오후 3시 30분~4시. 그는 그동안 결근이나 지각 한번 없었고 일할 공간이라도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의 한달 수입은 20만원 정도.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상자의 수량만큼 돈을 가져간다. 개인의 하루작업량을 적어놓은 서류엔 일당도 함께 적혀있다.

최씨는 “상자 하나를 접으면 7원이야. 상자 접는 속도가 빠른 나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루 1만원 정도 벌까. 시간당 500~1천원 벌이”라고 했다. 다른 이들은 하루 5천~7천원 수입을 올린다.

그는 이렇게 일해서 번 돈과 상담소로 들

어오는 후원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17만 원을 보태 한달을 버틴다. 예전에는 보조금이 30만원이었으나 들어오는 후원금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은 12만원이 됐다 17만원이 됐다하는 등 들쭉날쭉이다.

최씨의 한달 생계비는 1인당 최저생계비 49만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정부의 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근로들보다도 작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훨씬 많이 벌수 있는데 굳이 작업장 일을 고집하는 이유로 최씨는 “우리에게 주는 돈이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나도 염치가 있지. 건강히 허락하는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쪽방거주민들이나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이고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지만 예전 그들의 삶은 우리와 별반 틀리지 않다.

최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장난감 도매상 등을 하며 제법 큰 돈도 벌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하나뿐인 딸이 실종됐고, 그는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부인과 이혼했고, 자포자기 신세가 됐다. 이런 삶이 부끄러워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됐다. 그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있다.

“노숙인과 쪽방인 모두 사연이 있지.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겠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지 못한 자신의 탓이지. 여유가 조금이라고 생긴다면 나도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일자리를 위한 사업 절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정책은 일시적·한시적이거나 그나마 있는 일거리가 주어져도 수익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씨가 일하는 공동작업장의 일거리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순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강도에 비해 받는 보수는 낮다.

그래서 일용직이나 행사생활에서 벗어나 기술을 배워 안정된 생활을 갖고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다수는 한달을 버티기 힘들다. 강 팀장은 “작업장은 쪽방(노숙)인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주고 하루살이 인생에서 벗어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일상을 접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작지만 희망의 배움터”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안정적인고 고정적인 수입을 주지 못하는 탓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곳을 선택, 일한다는 것 자체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자활자립정책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전부터 대구쪽방상담소는 대구지방노동청과 함께 쪽방인과 노숙인을 위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쪽방·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란 장벽은 높기만 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 생활정보지에서 이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키로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다.

상담소의 윤승걸 소장은 “쪽방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뿐이라는 편견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가 40~50대로, 이들은 오랜 사회와의 단절과 빈곤한 물리적 환경 등으로 사회에 나설 용기가 없을뿐”이라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에 나와 빈곤을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053-356-3494. 계좌번호 007-04-000442-7(대구은행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고정일기자 kji@idaegu.com